

# “봉은사 외압, 있을 수 없는 일”

원담스님은 “봉은사와 관련 모 정치인과 외압설이 있다고 시종(언론)에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이 모 정치인에 의해 움직이는 종단 아니다”고 강조하고, “한국사회는 다종교 사회이고, 정교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우리 종단의 인사에 정부가 개입한 일이 없다”고 외압설을 강하게 부정했다.

다음은 기획실장 원담스님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약.

- 명진스님은 한마디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원담스님도) 소동이 미흡한 것을 말씀했는데.

= 이 논의(봉은사 직영사찰 지정)는 지난 2005년 종회에서도 있었다. 신도들과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부족한 생각이 든다. 앞으로 (대화의) 폭을 넓혀가겠다. 현 주지 스님의 임기가 가을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명진스님 입장에서는 섭섭할 것으로 생각한다.

- 총무원장 스님이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말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 기자간담회

중앙종회의 서울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승인 이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정치권의 외압설을 제기한데 대해 조계종 총무원이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불교조계종이 모 정치인에 의해 움직이는 종단 아니다”면서 “대명천지에 외부압력에 의해 봉은사가 직영사찰로 지정됐다는 주장에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 “종단 자주권 훼손된다면 먼저 나설 것” 정치적 문제로 키우는 행보 ‘우려’ 표명

= 총무원장 스님이 취임 이후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많은 사람을 만나 무수한 이야기 오갈 것이다. 건건마다 나와서 밝혀달라는 것은 무리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의 대표이고, (사회에서) 종교지도자로서 일정부분 보호하는 모양이 있어야 한다. 다른 종교도 고위 성직직자나 목회자가 무슨 일이 있다고 직접 나서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사회에 어른으로 남

아 있겠는가.  
- 사부대중과 토론회를 해서 지정 철회 의견이 나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가.  
= 종단에서 직영사찰을 지정한 것은 1994년 종단개혁부터다.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봉은사가 종단 직영사찰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단위사찰로 잘 살아온 부분은 인정하고, 봉은사 신도들에게 (종단 입장) 설명할 것

이다. 대화를 하면 공감대가 이뤄질 것이다.

- 안 대표가 총무원장 스님에게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밝혀 달라.

= 원장 스님이 적절한 시기가 돼서 하실는지 모른다. (현재는) 말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외압에 의한 것이 단 1%도 없다는 것이다. 종단에 그런 기류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치권에 돌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조계종에겐 종단의 자주권이 있다.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키우는 정치권 (행보)을 굉장히 우려한다. 저도 종단 자주권이 훼손된다면 먼저 나설 사람이다.

- 오늘 김 모씨가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는데.

= 외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단의 정서나 분위기는 (직영사찰 지정 문제를) 외압설로 몰아가는 것을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치인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총무원장 스님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유치 ‘도움’ 요청 총지종 총무원장 지성 정사는 지난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성스님(사진 왼쪽)을 예방,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종단협 회장을 맡고 있는 총무원장 스님은 “그동안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종단협 차원의 문제인 만큼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답했다. 총지종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트리원 부지 3000㎡(약 900평)에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유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사회 공동선 실현’ 첫걸음 내딛다

### 조계종 ‘종교교류위원회’ 발족...단체간 네트워크 추진

## 위원장에 혜경스님



조계종이 종교교류위원회를 발족했다. 조계종 사회부는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종교교류위원회(위원장 혜경스님·사진)를 발족했다. 종교교류위원회는 종교간 교류를 통해 우리사회 상생과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 종단 기구다. 이는 총무원장 지성스님이 지난 1월 종단 11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종교간 협력을 통한 공동선 실현’을 위한 방안에서 마련됐다.

다른 종교계의 종교교류 기구로는 가톨릭의 종교평화국제사업단(IPCR)이 대표적이며 한국의 여러 종교 단체가 참가하는 한국종교인

평화회의(KCRP), 한국국교지도자협의회 등이 있다. 사회부는 “이들 여러 종교 교류 단체와 더불어 활동을 펼치는 한편 종단 내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해 인력풀을 구성해 사회적 공동선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종교교류위원회는 종교간 교류를 통해 우리사회 상생과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 종단 기구다. 이는 총무원장 지성스님이 지난 1월 종단 11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종교간 협력을 통한 공동선 실현’을 위한 방안에서 마련됐다.

다른 종교계의 종교교류 기구로는 가톨릭의 종교평화국제사업단(IPCR)이 대표적이며 한국의 여러 종교 단체가 참가하는 한국종교인

## ‘종단 출연’ <1면에 이어>

밀운스님은 “비록 사찰을 창건하고 유지하는데 자금을 투입했다고 해도 사찰은 불교재산”이라며 “사찰은 불자 모두의 수행도량이고 기도도량으로, (동화사)를 내 소유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스님들이 지니게 된 재산은 개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사찰을 하나 지어도 모두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 지은 것입니다. 신도들이 낸 삼보장재로 지은 것인데, (스님들이)

후 속가 친인척이 나타나 민법을 앞세워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삼보장재를 갖고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 차례 지켜보았다. 밀운스님은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것 자체가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소유로 왔다가 무소유로 갈 사람들이 바로 스님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반대할 사람(스님)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면서 “스님이면 사후 사유재산을 종단 안에 들여놓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 명진스님 발언 사실 주장 안 대표 입장표명 ‘요구’

김영국 前특보 기자회견

김영국 전 조계종 총무원장 총책 특보가 봉은사의 직영사찰 지정에 대한 정치권의 외압 관련한 명진스님의 발언에 대해 “스님의 발언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영국 전 특보는 지난 23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계와 관련한 문화재 정책 및 예산에 대해 정부측과 대등한 논의를 위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홍길 의원과 총무원장 스님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배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영국 전 총책특보는 구체적인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확실한 건 명진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이라면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확실하게 자기 입장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엡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 현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23일 오후 2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사유재산종단출연’ 관련 토론회 자리를 차지한 스님들은 대부분 중앙승가대 학인들이었다. 발표자는 학인스님들을 앞에 놓고 열심히 종단 방침을 설명했다. 학인 스님들이 행사장에 나타난 것은 총무원 요청을 받은 학교 당국이 보냈기 때문이다. 평일 오후 열리는 종단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학인들은 오후 수업을 모두 빠졌다. 총무원 학인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한 경연대회 중앙승가대학 측에 오는 4월 17일 토요일에 열리는 ‘4대강 생명살리기 수륙대회’에 학인들을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 동원되는 학인들

다. 얼마나 외부 동원이 많았으면 중앙승가대 학생회가 외부 행사 동원 거부를 약속했을 정도다. 종단 소속 스님으로서 종단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교육의 한 과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자발성을 띠지 않는 교육은 효과가 없다. 관심 없는 청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피곤하다. 지켜보는 사람도 민망하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스님들이 스스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 주최측은 더 노력하고 분발하기를 당부한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몸과 정신을 최고 가치로 삼는 불교가 유류 대지만 학인들은 자신들이 행사 장엄용으로 동원된다고 여긴

## “외압 의혹 규명” 촉구

## 대중결사, 성명서 발표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을 둘러싼 정치권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가 성명서를

통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스님)는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종단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유린한 정치권력을 철저히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한 정법으로 시련을 극복하였던 한국 불교의 역사에 부끄러운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엡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 조계총림 송광사 전통강원 신입생 방부

- ※ 입방 구비서류
  - 승적증명서 1통 (또는 수계증명서, 교육필증 사본 각1부씩)
  - 은사스님 추천서 1통, 건강진단서 1통
  - 방부비, 사진 3매 (만의, 장삼 수하고 찍은 사진), 도장(법명)
- ※ 편입방부자 0명 (전학증 추가)
- ※ 날짜
  - 1차 방부: '10년 3월 27일까지
  - 2차 방부: '10년 4월 3일까지

大韓佛敎曹溪宗 僧寶宗刹曹溪叢林 松廣寺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12번지 강원 ☎ 061)755-5302 http://www.songgwangsa.org

## 불기 2554(2010)년도

# 쌍계사 승가대학 학인모집

쌍계사 승가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인스님들을 모집합니다.

- 다 음 -

- 모집학과 - 치문반 00명, 사집반 0명, 사교반 0명
- 입학자격 - 사미계를 수지한 조계종 승려
- 모집기간 - 2010년 3월 28일~4월 11일 까지
- 제출서류 - ① 수계증명서 ..... 1부  
 ② 은사스님추천서 ..... 1부  
 ③ 주민등록증사본 ..... 1부  
 ④ 각과 수료증(편입생) ..... 1부  
 ⑤ 기타서류(본 강원 소정양식) ..... 1부 \*기타서류는 심사후 작성
- 전형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
- 준비물 - 대가사(만의, 오조), 발우, 장삼, 사진(3×4)2매 \*교재는 사중에서 제공
- 문의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총무소 ☎(055) 883-1901 강원 ☎(055) 883-5447
- ※ 교육내용 중 저명대학 교수의 철학사 특강과 염불특강(법패)이 포함되어 있음
- ※ 특전: 부산경상대학(자매결연) 특례입학

불기 2554(2010)년 3월 일

☎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승가대학운영위원장 쌍계사 주지 상 훈  
 쌍 계 사 승 가 대 학 학 장 통 광